

붕괴위험 공도교 손 본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군산시, 추석 전까지 철거·확장공사

군산 월명공원을 산책하는 시민 및 장애우 편의를 증진하고 제방시설물의 안전성·사용성 확보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자 군산시는 공도교 확장(B=1.4m → 3m)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월명공원 내 점방산과 설립산을 연결하는 월명호수 제방의 공도교는 1967년에 설치된 시설로 노후화 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

했으며, 월명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후 폭이 좁아서 장애우(휠체어 포함) 및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 왔다.

이에 시에서는 16일부터 공도교 철거를 시작으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는 9월말까지 공도교 양방향 통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도교 양방향에서 산책로가 끊기게 되어 월

명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추석 전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 수도와 관계자는 "공도교의 확장 공사기간 동안 제방의 통행제한이 불가피하여 협력을 즐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2017년도 을지연습의 성공적 훈련을 위해 채광철 서장을 비롯한 본서 내근 근무자 총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 보고회와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을지연습 D-4’ 대응태세 점검

군산해경, 준비상황 보고회·자체교육 실시

21일부터 나흘간 예정된 을지연습을 앞두고 해경도 준비가 한창이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017년도 을지연습의 성공적 훈련을 위해 채광철 서장을 비롯한 본서 내근 근무자 총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 보고회와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17년도 을지연습 변경사항과 훈련 방침을 설명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훈련의 내실성을 높일 수 있는 '지체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국지도발대응과 위기관리능력배양, 국가총력전 훈련 등으로 실시된다.

군산해경은 21일 새벽 소속 전(全)직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적의 공격에 대비해 행정기관의 기능을 분할하는 소산(疏散)훈련과 위기단계별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시·비상사태에 항만시설

방호를 강화하고 바닷길 안전 확보는 물론 선박을 이용한 테러와 해외도피방지, 섬 지역민 안전수송 등의 매뉴얼을 점검하고 현 상황을 반영해 보강할 방침이다.

채광철 서장은 "해양경찰 임무에 적합하고 실제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위주로 현안과제 토의를 준비해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을지연습 기간에도 해상안전과 치안활동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비상사태가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을 해상치안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보다 안전한 전북도 바다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인구 30만 사수 '행정력 올인'

인구증가 추진상황 보고회 신규·핵심사업 집중 토의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30만 인구 사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철모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과·소장, 읍면동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증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정현율 시장 취임직후 2016년 6월부터 인구증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2017년 7월말 현재 인구는

30만 723명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30만명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시는 부서장들의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으며, 특히 2017년 시행하는 각종 신규, 핵심 사업을 토대로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연도별 인구추이, 인구감소원인, 문제점 및 금후계획에 대한 기획예산과장과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41개 부서 64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익산시는 인구증가를 위한 특

단의 대책으로 주소전입 대학생 학자금 지급,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 직원 전입독려를 통한 집단전입 추진, 예술의전당/보석박물관/시타투어 등 공공시설 할인, 모성 및 영유아 보전 사업 확대 시행, 귀농귀촌 정책추진을 통한 인구유입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철모 부시장은 "지역의 명운과 익산의 미래와 30만 익산 시민의 자존심이 달린 인구증가에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열정을 심어 달아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경험·지식으로 성공체전 견인차 역할”

전국체전 추진 총괄 본부장에게 이지영 전 익산부시장 위촉



익산시는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이지영 전 익산시 부시장을 '화합·문화·체전' 준비 추진 총괄 본부장에게 위촉하고 지난 8월 1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2018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이지영 전 익산시 부시장을 '화합·문화·체전' 준비 추진 총괄 본부장에게 위촉하고 지난 8월 1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2018년 전국체전 총괄본부장으로 위촉된 이지영 전 부시장은 주로 전라북도 본장에서 주요보직을 역임했고, 지난 2016년 4월에 익산시 부시장으로 취임 1년 2개월 동안 2018년에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준비를 총괄 지휘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체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괄본부장이 된 이지영 전 부시

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의 역할을 조정하고 문화예술과 체전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 추진 등을 통해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문 역할을 하게 된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자문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소방관련 민원업무 온라인에서

군산소방서가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소방민원센터 홍보에 나섰다.

인터넷 원스톱 소방민원센터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작년말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국단위의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민원센터 운영사항은 ▲소방시설 법에 따라 건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같은 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제출 등 소방관련 민원업무이다.

소방민원센터를 이용하면 소방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소방관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소방민원센터는 센터 홈페이지(http://somin.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경찰서가 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군산경찰서, 찾아가는 치매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군산경찰서가 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성치매, 알츠하이머 등 환자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조기발견·실종예방 방법 등을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치매파트너' 사업에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 참여를

도려하기 위해 실제 알츠하이머 환자의 영상과 치매예방 체조를 비롯, 뇌 신경 체조 체험 등을 실시했다.

최원석 서장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예방과 극복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 경찰이 이번 교육을 계기로 치매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장현기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홍보대사 안재욱